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반정호*

I. 머리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물론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력의 고령화는 임금비용과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부담의 증가로 다가왔고 1990년대 이후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증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늘어난 임금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Uni, 2008).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 및 이에 따른 임금체계의 변화는 근로자들의 임금(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Ohtake, 2003; Ota, 2005).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임금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및 가설)은 다양하다. 우선 노동공급과 임금(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여성, 노인, 청년층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확대가 낮은 지위의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말미암아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Kuhn and Robb(1995), Blau and Kahn(1996) 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임금불평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으며, Lawrence(1984)는 노동공급의 연령구조 변화에 의해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한편 기업들의 고용전략 변화가 고용의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다는 가설도 존재한다.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인사전략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Harrison and Bluestone(1990)은 경기변동과 인구학적 변화 요인만을 가지고 불평등의 변화를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고용관리 관행에 따라 파생되는 고용·임금관계의 재구조화와 유연화 증대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하고 있다(전병유, 2007).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노동력의 연령구조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으면서 50·60대 중고령층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폭된 특징으로 인해 50대 노동력은 2003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취업자 비중이 11.6%에서 2010년 8월 현재 5.1%p 증가한 16.7%까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60대 연령층에서는 2.6%p 취업자 비중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최근에 나타난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예, 희망근로)을 시도했던 우리나라의 고용정책 효과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짐작되지만, 진전된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가 임금소득 분배에 미친 영향을 요인분해¹⁾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불평등의 변화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의 차원을 결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최근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연령집단은 50·60대 중고령계층이며, 또한 이들 연령대는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보다 비정규직 고용의 차원을 결합하면 비정규 중고령계층의 고용유입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I. 노동력의 연령구조와 임금불평등 실태

<표 1>은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별·고용형태별 고용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고용비중의 큰 특징은 20·30대 연령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50·60대 중고령계층의 고

1) 이 글에서는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지표를 활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불평등 기여도(정태적 요인분해)와 노동력의 연령구성의 변화에 따른 기여도 변화(동태적 요인분해)를 분해한다. 대수편차평균은 소득불평등 지표의 하나로 $MLD = \frac{1}{n} \sum_i \ln \frac{\bar{Y}}{Y_i}$ 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에 \bar{Y} 은 모집단 전체임금, Y_i 는 개인 i 의 임금, n 은 개인의 수이다. 만일 임금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모든 Y_i 가 \bar{Y} 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므로 그 값은 0이 되며, 반대로 불평등한 분배일 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MLD 요인분해 방법에 대해서는 이병화·강신욱 외(2008), 반정호(2010)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별*고용형태별 고용비중

(단위: %)

		2003. 8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3	2009. 8	2010. 3	2010. 8
고용비중	전 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 ~ 19세	1.9	1.6	1.6	1.3	1.4	1.3	0.8	1.2	0.9	1.2
	20 ~ 29세	27.1	26.4	25.2	24.0	23.1	22.0	21.4	21.1	20.4	20.0
	30 ~ 39세	30.5	30.5	30.2	30.3	29.2	29.4	29.4	28.5	28.5	27.9
	40 ~ 49세	24.0	24.6	25.1	25.3	25.8	26.2	26.6	26.4	26.8	26.6
	50 ~ 59세	11.6	11.8	12.5	13.2	14.2	14.8	15.4	15.5	16.4	16.7
	60세 이상	4.9	5.2	5.4	5.8	6.3	6.3	6.5	7.3	7.0	7.5
	정규직	67.4	63.0	63.4	64.5	64.1	66.2	66.6	65.1	66.9	66.7
	비정규직	32.6	37.0	36.6	35.5	35.9	33.8	33.4	34.9	33.1	33.3
	청년 정규직	19.8	18.2	17.4	17.0	16.3	15.6	15.1	14.7	14.6	14.1
	청년 비정규직	9.2	9.8	9.4	8.4	8.2	7.7	7.1	7.6	6.8	7.1
	장년 정규직	39.0	36.4	37.0	38.0	37.5	39.4	40.0	39.2	40.2	40.1
	장년 비정규직	15.5	18.6	18.3	17.7	17.5	16.1	15.9	15.7	15.1	14.4
	중고령 정규직	8.7	8.4	9.0	9.5	10.3	11.1	11.5	11.2	12.1	12.4
중고령 비정규직	7.9	8.6	9.0	9.5	10.2	10.0	10.4	11.6	11.2	11.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8월 20~29세 연령계층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은 27.1%에서 2010년 8월 현재 20.0%까지 감소했으며, 30~39세의 고용비중도 같은 기간 30.5%에서 27.9%까지 감소했다. 반면 50~59세 연령계층에서는 2003년 8월 11.6%에서 2010년 8월 현재 16.7%까지 5.1%p 증가했고, 60세 이상 연령계층의 고용비중도 4.9%에서 7.5%p 증가한 7.5%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비중이 2003년 8월 67.4%에서 2010년 8월 현재 66.7%로 분석 기간 동안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같은 기간 32.6%에서 33.3%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과 고용형태를 결합한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통계지표에 반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비중 증가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30세 이하 청년층 정규직 비중은 19.8%에서 14.1%까지 감소했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역시 같은 기간 9.2%에서 7.1%까지 감소했다. 30·40대 장년층의 고용형태별 고용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층의 고용형태별 비중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분석기간 동안 각각 3.7%p, 3.9%p 증가했다.

<표 2>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별·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 실태를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0.346에서 2010년 8월 현재 0.357까지 증가했으며, 임금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2.75에서 3.11까지 증가해 불평등이

<표 2> 임금불평등 실태 :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					5분위배율				
	2002	2004	2006	2008	2010	2002	2004	2006	2008	2010
전 체	0.346	0.355	0.358	0.353	0.357	2.75	3.01	3.04	3.13	3.11
29세 이하	0.259	0.270	0.262	0.260	0.254	2.13	2.21	2.24	2.25	2.20
30 ~ 39세	0.307	0.303	0.302	0.294	0.286	2.53	2.63	2.71	2.60	2.57
40 ~ 49세	0.374	0.377	0.380	0.372	0.372	3.47	3.75	3.88	3.63	3.66
50 ~ 59세	0.411	0.422	0.420	0.414	0.406	3.56	3.82	4.09	4.29	3.75
60세 이상	0.421	0.387	0.431	0.376	0.424	2.73	2.56	2.67	2.40	2.34
정규	0.328	0.336	0.338	0.338	0.340	2.78	3.05	3.13	3.11	3.00
비정규	0.382	0.362	0.363	0.339	0.329	2.63	2.80	2.74	2.54	2.43
청년 정규직	0.234	0.244	0.243	0.246	0.236	2.07	2.16	2.16	2.12	2.08
청년 비정규직	0.332	0.316	0.295	0.281	0.277	2.39	2.38	2.42	2.40	2.29
장년 정규직	0.319	0.317	0.320	0.318	0.315	2.86	3.08	3.00	3.00	2.93
장년 비정규직	0.379	0.357	0.362	0.337	0.326	2.63	2.86	2.80	2.50	2.46
중고령 정규직	0.409	0.422	0.422	0.417	0.422	4.00	4.60	4.58	4.90	4.55
중고령 비정규직	0.411	0.380	0.374	0.339	0.328	2.59	2.63	2.63	2.23	2.21

주 : 각년도 8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전반적으로 고연령층일수록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분배가 불균등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임금5분위배율 역시 40·50대 임금근로자에서 가장 높아 이들 연령계층의 임금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다.

고용형태별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기준 0.32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8월 현재 0.340까지 증가한 상태이며, 임금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2.78배에서 3.00배까지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기준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기준 0.38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3월 현재 0.329까지 하락했으며, 임금5분위배율도 2.63배에서 2.43배까지 낮아져 상위 20%와 하위 20% 임금소득자의 임금격차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근로자의 연령계층과 고용형태를 결합한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청년층과 장년층 정규직의 임금불평등(지니계수 및 임금5분위배율)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모두에서 소폭 감소해 임금불평등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고령계층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임금불평등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고령 정규직의 지니계수는 2002년 8월 0.409에서 2010년 8월 현재 0.422까지 증가했고 임금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4.00에서 4.55까지 증가해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0.411에서 0.328까지 지니계수가 감소했고, 임금5분위배율도 2002년 8월 2.59배에서 2010년 8월 현재 2.21배까지 완화되었다.

III. 임금불평등 요인분해

1. 노동력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불평등 변화

여기에서는 노동력의 연령구조가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3>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연령별 임금불평등을 정태적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우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

<표 3> 임금불평등의 연령별 정태적 요인분해(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원, %)

	시간당 평균임금	구성비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전체		
2003	30세 이하	5,670	29.0	0.13008	0.03768	0.07368	0.11136	52.4
	30 ~ 39세	8,187	30.5	0.15579	0.04757	-0.03449	0.01308	6.2
	40 ~ 49세	8,653	24.0	0.24294	0.05827	-0.04035	0.01791	8.4
	50 ~ 59세	7,620	11.6	0.29377	0.03420	-0.00479	0.02941	13.8
	60세 이상	4,268	4.9	0.29796	0.01452	0.02624	0.04076	19.2
	전체	7,313	100.0	0.21253	0.19224 (90.5)	0.02029 (9.5)	0.21253	100.0
2006	30세 이하	6,654	25.3	0.11779	0.02986	0.06507	0.09493	44.4
	30 ~ 39세	9,459	30.3	0.15530	0.04709	-0.02881	0.01828	8.5
	40 ~ 49세	10,067	25.3	0.24246	0.06141	-0.03986	0.02156	10.1
	50 ~ 59세	9,011	13.2	0.29329	0.03881	-0.00616	0.03266	15.3
	60세 이상	5,276	5.8	0.31909	0.01840	0.02819	0.04659	21.8
	전체	8,602	100.0	0.21402	0.19558 (91.4)	0.01844 (8.6)	0.21402	100.0
2007	30세 이하	7,067	24.5	0.11501	0.02818	0.06333	0.09151	42.2
	30 ~ 39세	10,159	29.2	0.15676	0.04577	-0.03049	0.01528	7.1
	40 ~ 49세	10,582	25.8	0.24217	0.06251	-0.03748	0.02503	11.6
	50 ~ 59세	9,679	14.2	0.29844	0.04231	-0.00795	0.03436	15.9
	60세 이상	5,547	6.3	0.29963	0.01890	0.03158	0.05048	23.3
	전체	9,151	100.0	0.21667	0.19768 (91.2)	0.01899 (8.8)	0.21667	100.0
2010	30세 이하	8,005	21.3	0.10980	0.02336	0.06065	0.08401	39.7
	30 ~ 39세	11,779	27.9	0.13859	0.03867	-0.02821	0.01046	4.9
	40 ~ 49세	12,413	26.6	0.22992	0.06124	-0.04088	0.02036	9.6
	50 ~ 59세	11,090	16.7	0.26987	0.04515	-0.00683	0.03832	18.1
	60세 이상	6,641	7.5	0.31317	0.02337	0.03521	0.05857	27.7
	전체	10,646	100.0	0.21172	0.19178 (90.6)	0.01994 (9.4)	0.2117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는 30세 이하의 청년층 근로자 비중감소와 50·60대 중고령 근로자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표된다. 30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MLD)는 2003년 0.13008 수준에서 2010년 8월 기준 0.10980까지 하락했다. 30·40대 장년층 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60대 노년층 근로자의 임금불평등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2003년 연령별 집단내 불평등은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90.5%에서 2006년 91.4%로 다소 증가하다가 2010년 8월 현재는 90.6%로 2003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령 집단간 불평등 기여도는 2003년 9.5%에서 2007년 8.8%로 소폭 하락하다가 2010년 9.4%로 다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임금근로자의 구성비중과 임금수준을 함께 고려한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평등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0세 이하 청년층의 기여도는 52.4%에서 2010년 39.7%로 하락하고, 30대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6.2%에서 4.9%까지 낮아진다. 반면 40대 연령계층에서는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8.4%에서 9.6%까지 증가했으며, 50·60대 중고령 근로자에서는 각각 13.8→18.1%, 19.2→27.7%까지 대폭 확대된다.

<표 4>에서는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불평등의 동태적 변화를 제시해 주고 있다. 먼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집단별 임금불평등도(MLD) 변화를 살펴보면, 60세

<표 4> 임금불평등의 연령별 동태적 요인분해(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

		집단별 MLD 변화	집단내 불평등 변화	집단간 불평등 변화	집단 구성변화	절대적 기여분	상대적 기여율
2003 ~ 2006	30세 이하	-0.01229	-0.00334	-0.00142	-0.01167	-0.01643	-1103.4
	30 ~ 39세	-0.00049	-0.00015	0.00314	0.00221	0.00520	349.3
	40 ~ 49세	-0.00048	-0.00012	0.00081	0.00295	0.00364	244.6
	50 ~ 59세	-0.00048	-0.00006	-0.00162	0.00492	0.00325	218.0
	60세 이상	0.02113	0.00112	-0.00305	0.00775	0.00583	391.6
	절대적 기여도		-0.00254	-0.00213	0.00616	0.00149	100.0
	상대적 기여도		-170.5	-143.2	413.6	100.0	
2007 ~ 2010	30세 이하	-0.00521	-0.00119	0.00501	-0.01132	-0.00751	151.7
	30 ~ 39세	-0.01817	-0.00519	-0.00040	0.00077	-0.00482	97.4
	40 ~ 49세	-0.01225	-0.00321	-0.00341	0.00195	-0.00467	94.4
	50 ~ 59세	-0.02857	-0.00442	0.00163	0.00675	0.00396	-80.0
	60세 이상	0.01354	0.00093	-0.00230	0.00946	0.00809	-163.5
	절대적 기여도		-0.01308	0.00052	0.00761	-0.00495	100.0
	상대적 기여도		264.1	-10.5	-153.7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이상 연령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임금불평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30세 이하의 청년층 임금불평등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기간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 절대적 기여분은 0.00149로 소폭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임금불평등 심화는 노동력의 연령구성 변화에 의한 영향력(413.6%)에 기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연령별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의 절대적 기여분은 각각 -0.00254, -0.00213으로 하락했으며,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역시 -170.5%, -143.2%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과 2010년 동안 임금불평등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의 절대적 변화는 -0.00495를 기록해 불평등 수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와 같은 불평등 완화는 집단내 불평등 완화에 의한 효과가 크게 작용한데 기인한다. 연령별 집단내 불평등 변화의 절대적 기여분은 -0.01308로 나타나며, 이의 상대적 기여도는 264.1%로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세분하면 60세 이상 연령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집단내 불평등이 모두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연령별 집단간 임금불평등도 변화는 0.00052로 나타나며, 집단간의 불평등 증가에 있어 상대적 기여도는 -10.5%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노동력의 연령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2007~2010년 동안 30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증가에 있어 보였으며,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증가는 50·60대 중고령계층의 취업자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기간 임금근로자의 연령구성 변화에 의한 임금불평등의 절대적 기여분은 0.00761로 전체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 기여도 역시 -15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30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는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며, 30·40대 장년층 취업자(노동력 핵심연령층)의 증가는 전체 불평등을 소폭 감소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 기간 50·6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구성 및 절대규모의 증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2. 노동력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임금불평등 변화: 고용형태와 연령구조의 결합차원

앞선 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노동력의 연령구조 및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를 결합하여 분석기간 동안에 관측되는 고용구조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효과를 분해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증가를 주도한 50·60대 중고령 취업자의 고용이 많은 부분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2010년 8월 기준 연령별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50~59세 연령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39.3%,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69.6%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40대 임금근로자

의 29.8%, 30대와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각각 23.3%, 31.3%로 나타나 전 연령대에 걸쳐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분포되는 특징이 있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유연성이 급진전되고 있고 수요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별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경력직이나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개인의 근로생애가 상당히 오랜기간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령인구의 근로욕구 및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와 고용형태는 앞으로 더욱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될 것이다.

<표 5>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연령-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 수준을 정태적으로 분해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분석의 결과는 주로 50·60대 중고령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200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연령-고용형태별 하위집단 내에서 발생한 임금격차가 약 86.8%를 설명하고 13.2% 정도가 집단간 임금격차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불평등 기여도는 2006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집단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82.5%까지 하락하고, 반면 집단간 불평등의 기여도는 17.5%까지 증가하여 2003년에 비해 집단간 임금분배가 보다 불균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령-고용형태별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는 30세 이하 청년층 정규직의 기여도가 29.8%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중고령 비정규직의 기여도가 27.2%, 30·40대 장년층 비정규직이 23.7%, 청년층 비정규직 22.6%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청년층 정규직의 상대적 기여도는 21.2%까지 하락한 반면, 중고령층 비정규직의 기여도는 39.2%까지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에 가장 많은 기여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석된다.

<표 6>은 노동시장의 연령구조 및 고용형태 변화가 임금불평등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2003~2006년 기간 동안 각 연령-고용형태별 임금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계층의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MLD)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모든 연령계층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은 감소했다. 또한 각 연령-고용형태별 집단내 불평등 변화는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집단간 불평등도의 변화는 소폭이지만 전체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조 및 고용형태의 결합차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변화를 막론하고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의 감소가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킨 반면, 중고령층 비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반대로 중고령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임금불평등은 다

<표 5> 임금불평등의 연령-고용형태별 정태적 요인분해(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원, %)

	시간당 평균임금	구성비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전체		
2003	청년 정규직	5,845	19.8	0.09620	0.01902	0.04428	0.06330	29.8
	청년 비정규직	5,294	9.2	0.19963	0.01836	0.02970	0.04806	22.6
	장년 정규직	9,082	39.0	0.16715	0.06522	-0.08453	-0.01932	-9.1
	장년 비정규직	6,656	15.5	0.23038	0.03571	0.01460	0.05031	23.7
	중고령 정규직	8,505	8.7	0.29499	0.02553	-0.01307	0.01246	5.9
	중고령 비정규직	4,567	7.9	0.26352	0.02071	0.03700	0.05771	27.2
	전체	7,313	100.0	0.21253	0.18455 (86.8)	0.02798 (13.2)	0.21253	100.0
2006	청년 정규직	6,897	17.0	0.09841	0.01671	0.03749	0.05419	25.3
	청년 비정규직	6,160	8.4	0.15287	0.01279	0.02794	0.04074	19.0
	장년 정규직	10,578	38.0	0.17232	0.06547	-0.07859	-0.01312	-6.1
	장년 비정규직	7,924	17.7	0.21778	0.03845	0.01450	0.05295	24.7
	중고령 정규직	10,449	9.5	0.30612	0.02903	-0.01845	0.01058	4.9
	중고령 비정규직	5,315	9.5	0.24010	0.02285	0.04582	0.06868	32.1
	전체	8,602	100.0	0.21402	0.18531 (86.6)	0.02870 (13.4)	0.21402	100.0
2007	청년 정규직	7,303	16.3	0.09969	0.01626	0.03679	0.05305	24.5
	청년 비정규직	6,598	8.2	0.14209	0.01165	0.02682	0.03846	17.8
	장년 정규직	11,261	37.5	0.17734	0.06652	-0.07781	-0.01130	-5.2
	장년 비정규직	8,420	17.5	0.21152	0.03702	0.01458	0.05161	23.8
	중고령 정규직	11,041	10.3	0.31675	0.03256	-0.01930	0.01326	6.1
	중고령 비정규직	5,753	10.2	0.23722	0.02421	0.04737	0.07158	33.0
	전체	9,151	100.0	0.21667	0.18821 (86.9)	0.02846 (13.1)	0.21667	100.0
2010	청년 정규직	8,500	14.1	0.09241	0.01306	0.03183	0.04490	21.2
	청년 비정규직	7,026	7.1	0.13246	0.00945	0.02966	0.03911	18.5
	장년 정규직	13,230	40.1	0.16707	0.06698	-0.08710	-0.02011	-9.5
	장년 비정규직	8,920	14.4	0.17575	0.02538	0.02554	0.05093	24.1
	중고령 정규직	12,924	12.4	0.30626	0.03804	-0.02408	0.01396	6.6
	중고령 비정규직	6,335	11.8	0.18546	0.02183	0.06110	0.08293	39.2
	전체	10,646	100.0	0.21172	0.17475 (82.5)	0.03697 (17.5)	0.2117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연령구조와 고용형태를 고려했을 때, 집단내 불평등 변화분은 -323.7%, 집단간 불평등 변화분은 -10.0%, 구성변화에

<표 6> 임금불평등의 연령-고용형태별 동태적 요인분해(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

		집단별 MLD 변화	집단내 불평등 변화	집단간 불평등 변화	집단구성 변화	절대적 기여분	상대적 기여율
2003 ~ 2006	청년 정규직	0.00221	0.00041	-0.00045	-0.00906	-0.00911	-612.2
	청년 비정규직	-0.04676	-0.00411	0.00102	-0.00423	-0.00732	-492.3
	장년 정규직	0.00517	0.00199	0.00406	0.00015	0.00620	416.8
	장년 비정규직	-0.01260	-0.00209	-0.00188	0.00661	0.00264	177.6
	중고령 정규직	0.01113	0.00101	-0.00389	0.00099	-0.00189	-126.9
	중고령 비정규직	-0.02342	-0.00204	0.00099	0.01201	0.01096	737.0
	절대적 기여분		-0.00482	-0.00015	0.00646	0.00149	100.0
상대적 기여율		-323.7	-10.0	433.6	100.0		
2007 ~ 2010	청년 정규직	-0.00727	-0.00111	-0.00275	-0.00429	-0.00815	164.6
	청년 비정규직	-0.00963	-0.00074	0.00543	-0.00404	0.00065	-13.1
	장년 정규직	-0.01027	-0.00398	-0.01063	0.00580	-0.00882	178.1
	장년 비정규직	-0.03577	-0.00571	0.01213	-0.00709	-0.00068	13.7
	중고령 정규직	-0.01049	-0.00119	-0.00269	0.00458	0.00070	-14.2
	중고령 비정규직	-0.05176	-0.00569	0.00411	0.01293	0.01135	-229.2
	절대적 기여분		-0.01842	0.00559	0.00788	-0.00495	100.0
상대적 기여도	100.0	372.2	-112.9	-159.2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의한 불평등 변화분은 433.6%로 구성변화에 의한 불평등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2007 ~ 2010년 동안에는 청년층 고용비중의 감소와 중고령층 고용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졌던 기간이다. 우선 각 집단별 임금불평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 ~ 2006년 분석기간과 다르게 각 연령계층별 정규직 일자리에서 임금불평등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은 장년층 정규직의 비중이 앞선 분석기간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이 감소했던 시기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효과가 정규직 고용규모를 증대시키는 효과와 함께 임금불평등도 다소 감소시켰던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를 놓고 보면 집단간 불평등의 변화분이 크게 증가했고,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에 의한 불평등 변화분(0.00788)도 2003 ~ 2006년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령-고용형태의 구성비와 임금수준을 고려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청년층 정규직 감소와 장년층 정규직 비중 증가는 전체 임금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 반면, 중고령층 임금근로자의 비중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

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고령 정규직의 구성변화는 2003~2006년 시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2007~2010년 시기에는 반대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령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는 2003~2006년 시기에 전체 임금불평등 증가분에 대해 약 737.0%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2007~2010년 기여도가 -229.2%(전체 임금불평등 감소분에 대한 기여도)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체 임금불평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7~20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의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주로 50·60대 중고령층의 고용진작으로 나타났고, 이는 대부분 임금수준이 동일한 소득보전형 임시일자리였기 때문에 해당 중고령층 비정규직의 기여도가 다소 하락했던 것으로 예측된다.

종합해 보면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중고령층의 고용증가가 경험되었고 이와 같은 중고령계층의 고용증가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3~2006년은 각 연령-고용형태별 집단내·집단간의 임금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노동력의 연령구성과 고용형태의 구성변화가 임금불평등 증가를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07~2010년 기간에는 앞서 언급했던 정부의 일자리 대책 등의 정책효과가 작용하여 노동력의 구성변화(연령*고용형태)에 의한 임금불평등 증가분이 2003~2006년 기간에 비해 증가했으며, 집단간 불평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IV. 맺음말

이 글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관측되는 중고령계층의 고용증가로 대표되는 노동력의 연령구성 변화가 임금불평등에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 지표를 통해 임금불평등 실태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중고령 계층을 중심으로 임금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부터 2010년 기간(각년도 8월 기준) 동안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불평등(MLD)을 요인분해하면 집단내·집단간 불평등에는 큰 변화가 관측되지 않지만 고용형태를 결합하면 집단내 불평등이 감소하는 대신 집단간 불평등의 전체 임금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중고령계층의 고용변화가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중고령계층의 고용비중 확대(특히 중고령 비정규직)는 불평등 수준을 확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즉 중고령계층

의 고용비중 증가는 노동시장의 임금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고용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책효과,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고령계층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시장의 고용의 양적 확대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력의 연령구조 변화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함께 작용했음을 일련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험에서처럼 고령화의 진전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연적 사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 진전의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노동력의 고령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노동생애 기간과 욕구에 대한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보장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후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중고령세대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규직 형태로 취업한 중고령계층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중고령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통해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전체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 반정호(2010). 「고용구조 변화와 임금불평등 - 종사상지위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64, pp.49-62.
- 이병화·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전병유(2007).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13(2), pp.171-230.
- Blau, F. D. and L. Kahn(1996),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4), pp.791-838.
- Kuhn, P. and A. L. Robb(1995), “Unemployment, Skill, and Labour Supply: Evidence from Canadian Microdata 1971-1991,” Working Paper No.95-11, McMaster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 Harrison, B. and B. Bluestone.(1990), “Wage Polarization in the US and the ‘Flexibility’

- Deba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4(3), pp.351-374.
- Lawrence, R. Z.(1984),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The Brookings Reviews* 3, pp.3-11.
- Ota, K.(2005), “Rise in Labour Income Inequality with Increasing Numbers of Freeters,” ESRI Discussion Paper Series. No.140.
- Ohtake, F.(2003), “Was There a Rise in Income Inequality?”, Policy Research Institute(ed.),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Stratum in Japan*, Nihon Hyouraonsha.
- Uni, H.(2008), “Changing in Employment Structure and Rises in Wage Inequality in Japan,” Paper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ublic Employment Service Policies and Perspectives.